

#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육아·교육 관련 스트레스와 가족문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최 나 야(가톨릭대학교 교수)

우 현 경·정 현 심(서울대학교 박사수료)·박 혜 준·이 순 형(서울대학교 교수)

이 연구는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우리나라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육아·교육 관련 스트레스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정에게 요구되는 복지적, 교육적 서비스를 보다 실제적인 수준에서 탐색하고, 가족을 단위로 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의 적응과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6명의 어머니들은 필리핀(3명), 몽골(2명), 일본(1명) 출신의 결혼 이민자 여성들로,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하며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통합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영·유아기 자녀들과 함께 총 8회 참가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결혼과정, 한국생활 적응, 한국어 학습, 출산과 육아 및 교육 등에 대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 면접과 개인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프로그램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적응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지원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 둘째,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적응에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은 한국어 능력인데, 출산과 육아는 집중적인 한국어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부족은 영·유아기 자녀들의 언어발달과 기본학습능력 상의 지체를 가져와 다문화가정의 주요 스트레스원이 된다. 셋째,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전에 한글 읽고 쓰기 등의 기본학습능력을 습득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며 취학 후 자녀가 학업적·사회적 측면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한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학업적 성공이 갖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할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넷째, 언어능력에 있어 취약한 가족을 대상단위로 하는 가족문제 프로그램은 어머니와 자녀 각각에 대한 언어 지도와 가족 간의 상호작용 촉진을 통해 모-자녀의 언어능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각 하위 프로그램이 동일 주제로 통합되어 반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어머니의 자신감과 양육효능감을 높여준다는 점, 그리고 보육, 교재,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이 영·유아기 자녀의 양육과 교육과 관련해 느끼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역사회의 자원과 공적기금을 활용한 물질적·심리적 지원을 증가하고, 어머니와 자녀들 모두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부모자녀 통합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모-자녀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머니들에게 양육과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녀의 기본학습능력을 증가시켜준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